

##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

### 메세나의 어원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Caius Cilinius Maecenas)의 인명에서 유래.

1967년 미국의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칭.



#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2008. 05 VOL.001

#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면

기업이 행복해집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향상됩니다.

직원이 행복해집니다.

문화예술의 힘으로 창의적인 기업 문화가 조성되고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고객이 행복해집니다.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올라갑니다.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하시면

-회원의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마케팅 세미나 등 수준높은 문화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메세나 매거진 및 언론 등을 통해 효과적인 기업 홍보를 지원해드립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이므로 회비나 문화예술단체 결연 지원금은 물론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지정기부금 처리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

·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

가입대상	▶ 참여하고 싶은 기업, 개인, 문화예술단체는 누구라도 가입 가능
가입방법	▶ 입회신청서 1부 제출
연 회 비	▶ 기업 : 연 2백만원 이상
	▶ 개인/문화예술단체 : 연 1백만원 이상

# CONTENTS

**04** 인터뷰 **06** 찾아가는 공연 | 삼원테크 | 일림나노텍 **08** 즐거운 나눔티켓 | <남해자애원>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 <마산인애의 집>뮤지컬 '뽀로로와 요술 램프' **10** 기업과 예술의 만남 | 경남스틸 | 무림페이퍼 | 서울이비인후과 | STX조선 | 경남은행 | 청아병원 | 동환산업, 노키아티엠씨 | 경원여객자동차, 대경건설 | 동은화학, 장생도라지 | 삼흥열처리, 흥일기업 **20** 매칭펀드 소개 **22** 2008사업계획 **26** 사업현황 **27** 기업과 예술의 만남, 왜 메세나인가? | 경남대학교 문화컨텐츠학부 김종원 교수 **28** 임원 및 회원소개 **32** 언론에 비친 경남메세나



경남메세나협의회 정경득 회장  
**“경남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로”**

기업은 진화한다. 적응이 아닌 변화를 해야 하고, 이것을 주도해야 글로벌시대의 승자가 된다. 문화예술이 가진 창조력과 상상력은 진화하는 기업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인 경남에서 2007년 지역 최초로 메세나협의회가 발족한 것은 경남의 기업들이 또 한 번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초대회장으로서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을 추동해 “경남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정경득 경남은행장으로부터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과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은 “앞으로 글로벌 경쟁은 문화경쟁의 양상을 띠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조력과 상상력이 21세기 경쟁력의 커다란 요소가 될 것이란 뜻입니다. 끊임없이 변화야만 하는 기업들로서는 문화예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립 이후 6개월 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7년은 경남메세나협의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경남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31일에 가진 창립기념식 및 결연식에서는 지역의 8개 기업과 10개의 문화예술단체가 결연을 맺어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현재 경남메세나협회에는 총 150개 회원들이 메세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총 17쌍이 결연을 맺어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2007년 짧은 기간 메세나에 대한 관심 고취와 열기 확산이 목표였다면, 올해는 경남 지역에 메세나 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지역의 더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와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 만남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현재 150개 회원사를 2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경남메세나협회의 주력 사업은 아무래도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결연사업’을 통해 올해는 대략 30쌍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남도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매칭펀드 사업’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메세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세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메세나에 대한 일반인들은 물론 기업인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편인데요. 많은 석학들이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의 시대’라는 점을 누구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문화예술이 가진 창조력과 상상력을 활용함으로써 친근한 기업 이미지와 부드러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점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는 있지만, 이를 어떻게 기업경영과 접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문화마케팅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인식을 차츰 높여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문화예술단체들도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늘 새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더불어 기업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기업이 지원하기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업이 해 왔던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과 메세나 운동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육성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을 할 때마다 조금씩 기업의 후원을 받기 위해 뛰어나야 했으나, 메세나 운동은 우수한 문화·예술 단체를 발굴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큰 차이점으로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기업체로부터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해나가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는 점입니다. 즉, 문화예술단체들도 기업을 위해 직원이나 고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사내로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고 발전해 나가는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세나 운동이 활성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기업들의 경우 고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유지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직원들의 창의력 증진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늘어나 문화기업으로서의 명성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창조적인 역량을 예술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업의 앞선 경영마인드와 마케팅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경남도민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므로 문화복지가 향상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부흥하는 메세나 운동을 우리나라 산업계의 중심지인 경남에서 활성화시켜 경남지역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나아가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경남메세나협회와 정경득회장의 활약을 기대한다.

“올해는 경남 전역에 메세나 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 “삼원테크 가족과 함께하는 숫대패사물놀이 예술단의 정월대보름 공연”

### 사물놀이 장단에 속이 후련하다.

장고, 북, 팽과리, 징이 리듬을 탄다. 소리는 귓전을 때린다. 장단에 머리와 어깨가 움직인다. 차츰 소리는 빨라지고 몸은 소리에 빨려 들어간다. 팔 다리가 절로 움직인다... 지난 2월 21일 삼원테크 구내식당에서 숫대패사물놀이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지자 600여명의 삼원테크 가족들에게 일어난 변화다. 지신밧기로 시작해 3시간 동안의 공연이 끝날 즈음에는 모두가 일어나 한 바탕 뛰어 놀았다. 누군가 큰 소리로 한 마디 한다. “어 그 참 속 시원하네” 사물놀이 공연소감으로 최고의 찬사다. 이택우 사장의 표정도 흡족하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경남메세나협회의 프로그램인 ‘회원사를 찾아가는 작은 공연’을 신청해 삼원테크 구내식당에서 연 사물놀이 공연은 기대 이상이었다. 삼원테크에서는 처음으로 연 공연이기에 담당자였던 송미옥 부장은 마음을 졸였다. 업무가 아니라 노는 일인데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까? 제 시간에 맞춰 오지 않으면 공연은 늦어질 텐데 어떡하나? 재미없어 하는 건 아닐까? 완전히 기우였다. 흥을 낸 삼원테크 가족들은 다음 해에도 또 하겠다. 사실 일하는 공간을 놀이공간으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비용도 든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수 하더라도 얻게 되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택우 사장의 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흥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 흥은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직원들의 흥을 발산시켜주면 업무에서 능률이 오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쌓인 좋지 않은 감정들도 술 먹어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음악이나 문화예술 활동으로 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삼원테크의 유압용관이음쇠는 품질을 인정받아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 수출되고 있어 이택우 사장은 해외출장이 잦은 편이다. 이 사장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는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느낀 바가 많았다고 한다. 직원들에게 공연 티켓을 주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지난해 경남메세나협회가 발족하면서 회원사로 가입하고 숫대패사물놀이 예술단과 결연을 맺었다. 숫대패는 1987년 창단해 국립민속국악원의 정단원과 준단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등 해외순회공연과 KBS, MBC정기공연, 지방초청공연 등 2000여 회의 공연을 한 전문 예술단이다. 이 사장은 “지금 한창 뛰고 있는 중소기업 CEO들이 50대인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지원에 소극적이다”면서 “이제 소득 2만불 시대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메세나에 동참하기를 기대했다.

## “일림나노텍 가족과 함께하는 연말문화송년회”



### “앉아서 보기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난해 연말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작은 공연’을 준비하던 일림나노텍 마케팅팀에게 박효찬 대표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연이 되도록 주문했다. 대표님의 엄명(?)에 ‘찾아가는 공연’ 담당자들은 직원들의 장기자랑 시간을 마련했는데 직원들의 참여 문제가 관건이었다. 술 한 잔 하고 노래방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회사 높은 신 분들 앞에서 노는 건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일 아닌가. 마케팅팀은 참가신청률이 저조할 경우 직책이 높은 분들의 힘을 빌려 반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까지 고려했다. 다행히 각 부서에서 장기 자랑에 나서기로 결정해주었다.

12월 28일 오후3시 공연이 시작됐다. 노는 토요일이지만 100여명의 직원들 대부분이 참석했다. 숫대패 사물놀이가 첫 무대를 장식해 흥을 올려놓았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의 장기자랑 차례가 됐다. 무대에 오른 직원들은 상금에 눈에 멀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망가졌다.(?) 어쨌든 객석에서는 큰 박수와 웃음 소리가 터졌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신유식씨의 소프라노 색소폰 공연이 이어졌다. 소프라노 옥타브 높은 소리가 공장 하늘 위로 뻗쳐 올라갔다. 일림나노텍의 기상과 희망까지 오르는 느낌이다. 일림 나노텍은 공장기계인 CNC 선반 및 CNC머시닝센터를 OEM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매출액 375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2008년 3월 중국 연태에 일림기공 설립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 날 만큼은 마음을 풀고 느긋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겼다.

이 날 장기자랑에 참여해 김건모의 ‘빛속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러 주목을 받았던 전기부서의 조우영씨는 “부서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부서원들과 낯설었는데 공연 덕분에 얼굴도 알리고 많이 친해졌다”고 말했다. 사실 일하는 토요일도 아닌 노는 토요일, 그것도 연말이라 약속이 많을 시기에 회사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조우영씨는 “정말 재미있고 좋았다”면서 만족했다.

직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기분이 한껏 오른 박효찬 대표는 그 날 저녁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아마 회식비가 꽤 나왔을 텐데...

일림나노텍은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진 공연이었다”면서 “앞으로는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이 날 공연에 대해 아주 만족했다. 🐦





##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주는 희망티켓을”

남해 자애원 어린이들이 집을 나섰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7명이다. 1월 26일 진주 도립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보러 가는 길이다. 차를 타고 외출하는 것만 해도 좋은데 뮤지컬까지 본다니 기분이 좋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노래하고 춤추는 연극이 뮤지컬이라고 하던데 어떤 것일까?

차가 뽕뽕 달린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차 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흠~조금 부러운 걸. 하지만 우린 식구들이 많아서 좋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뮤지컬을 보기 전에는 배를 든든히 채워야 된다. 점심 밥보다 핫도그가 더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도 맛있겠다. 침을 꿀꺽 삼키며 선생님을 쳐다보니 오늘은 선생님이 사 주시겠다. 히히

드디어 뮤지컬을 한다. 배우들이 캐릭터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 와아~ 정말 실감 난다. 마녀 옷 입고 가면 쓴 사람은 정말 마녀같다. 집을 만들었다가 금방 부숴버리고, 그런데 집에 가고 싶은 도로시를 마녀들이 못 가게 하니까 속상하다. 우리 반 아이 중에도 마녀 같은 아이가 있는데...뭐 마녀는 결국 혼이 나니까 착한 내가 참자.

이 뮤지컬은 경남메세나협회에서 보여 주는 거란다. ‘메세나협회’ 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허수아비처럼 지혜를 갖고, 양철 나무꾼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사자처럼 용기를 가져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도와주는 어른들이 많다.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한 명씩 뿐이지만 우린 엄마 아빠가 너무 너무 많다.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어른들은 엄마 아빠나 마찬가지다.

뮤지컬이 끝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로시처럼 은빛 구두 뒷 굽을 세 번 톡톡 쳐 볼까? 그럼 우리 모두 금방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조금 졸립다. 선생님은 우리를 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니면 좋는데 남해에서 가장 가까운 진주 도립문화예술회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리니까...”하며 한숨을 쉰다. 선생님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건 다 보여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마음 알 것 같다. 나도 신기한 게 있으면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하니까.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보고 온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든다. “마녀가 혼자 문을 팍 열던 거 생각나?” “응 나는 깜짝 놀랐더니까”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지만 아이들은 뮤지컬을 보는 동안 또 다른 세계에 갔다 온 셈이다. 아이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다른 그 무엇,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해 주는데 문화예술만 한 것이 어디 있을까? 자애원 아이들에게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관람은 더 소중한다.

## “요술램프가 있다면 무슨 소원을 빌까?”

마산 인애의 집에 사는 열한살 가영이는 요술램프가 있다면 무슨 소원을 빌까? ‘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를 재미있게 봤다는 가영이는 “음...음...”하며 쉽사리 답하지 않는다.

가영이는 올 1월 19일 경남메세나협회의 도움으로 창원성산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를 인애의 집 아이들 8명과 함께 관람했다. 텔레비전에서도 본 ‘뽀로로와 요술램프’ 이지만 뮤지컬은 처음이다.

바로 눈앞에서 큰 뽀로로와 크롱이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하다. 그런데 함께 갔던 다섯 살짜리 막내가 아프다고 칭얼댔다. 선생님은 공연은 보지 못하고 막둥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요술램프가 있다면 막둥이 울음부터 그치게 할 텐데. 아~아니다. 뽀로로가 낚시터에서 건져 올린 낚은 요술램프는 진짜요술 램프가 아니었다. 요술램프라고 믿고 있는 뽀로로를 위해 친구들이 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진짜 요술램프는 무엇일까?

뽀로로와 친구들이 좌충우돌 난리를 겪다 뽀로로가 요술램프를 찾지만 모험이 벌어지는 동안 헤어진 친구들을 찾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빈다.

지난해 9월 인애의 집으로 온 가영이는 이제 적응이 많이 됐지만 인애의 집으로 오기 전 일들이 떠오른다. 그쪽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가영이는 인애의 집에 오기 전에 다녔던 학교 친구들을 생각하는 눈치다. 물론 여기 집과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세상살이는 요술램프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듯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연을 함께 봤던 인애의 집 김은규 선생님은 “이런 공연은 아이들의 표현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인애의 집 아이들에게는 1년에 1~2회 정도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가영이는 미술 시간에 만들기를 좋아하고 잘한다. 패트병으로 돼지저금통을 잘 만들어 학교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다.

자그마한 얼굴에 안경을 써 ‘뿔뿔이’ 처럼 보이는 가영이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 아닐까? 🐣





## “경남 메세나의 주춧돌” **Gns** 경남스틸 \_ 마산관악합주단

‘메세나’로 유명한 경남스틸(주)의 창원 웅남동 공장에 들어서면 ‘역시 나’ 하는 탄성이 절로 터진다. 사무실 입구부터 벽면에는 온통 지역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다. 경남스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은 총 120여 점으로 최 대표가 1년에 4~5차례 지역 화가들의 전시회에 들러 그림 한 점을 구입한 것이다. 결제서류를 직접 들고 1층과 2층을 오가던 최 총경 대표는 “우리 회사에 있는 그림은 전부 지역 화가들 작품입니다. 지역 화가들 그림이 잘 팔리지 않는 데 우리가 사야죠”하면서 싱긋이 웃는다. 피카소 작품을 소장한 수집가가 부럽지 않은 표정이다.

2004년 문화관광부, 2006년 한국메세나협의회 메세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남스틸의 메세나는 30여년전 최 대표가 취미로 색소폰을 배우면서 사비를 털어 마산관악합주단(단장 김정호)을 후원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980년대 초반 50여명의 지역 음악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산관악합주단은 정기연주회를 열면 대관비, 포스터와 팸플릿 제작비용 등을 자체 충당하느라 가뜰이나 어려운 음악가들의 허리가 휘어졌다. 이 때 최 대표가 도움을 준 것이 인연이 되어 20여년동안 마산관악합주단의 연 2회 정기연주회에 들어가는 경비 대부분을 지원했다.

경남스틸은 순이익금의 10%를 지역 사회를 위해 쓴다. 지난해에는 3억여원이 환원됐다. 이 중 1/3 가량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다.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결연을 맺은 마산관악합주단, 한국메세나협의회를 통해서도 경남재즈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지역 화가와 문인들의 작품 발표나 책자 발간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의 활동 여부와 민간이 주도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경남스틸의 메세나가 돋보이는 점은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문화예술단체가 발전하고 또 이들의 활동을 지역 사회가 향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과 거래하는 고객사에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연주회의 티켓을 선사해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귀한 티켓이 버려지지 않도록 최총경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공연 초청장을 다시 찍어 발송을 한다. “요즘은 티켓을 보내면 많이 보러 옵니다. 지난번 경남 재즈오케스트라 공연에는 1,200석이 꽉 찼어요” 최 대표의 적극성이 세월이 흐르면서 효과를 드러낸 대목이다.

경남스틸이 ‘돈 안 되는’ 지역의 문화 예술에 ‘돈을 쓴’ 결과는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경남스틸에는 50여명의 사원 중 이혼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알짜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뺄릴 만큼의 임금과 복지수준으로 생활의 안정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젖어 든 문화 예술로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경남스틸은 직원 50여명이 1,500여억원(2007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직원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이 중요하다. 지역 사회에서도 문화예술단체의 왕성한 활동으로 음악을 즐기고 그림을 감상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난다면 지역 사회는 건강해지고 그것은 바로 지역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진다. ‘버는 족족 쓴다’고 해서 ‘괴짜’ 사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경남스틸의 최총경 대표는 지역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원천을 가꾸어 온 선구자다.



## “서부 경남의 대표기업으로서 메세나도 선두주자” **MOORIM** 무림페이퍼 \_ 진주챔버오케스트라

국내 1위의 아트지 전문기업인 무림페이퍼(대표이사 김인중)는 2003년부터 진주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남강사랑 그림축제를 개최해 메세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던 중 지난해 경남메세나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진주챔버오케스트라(대표 심재화)와 결연을 맺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종이는 예술이다”라고 문화예술에 대한 동질감을 갖고 있는 무림페이퍼는 진주챔버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이 기쁘고 자랑이다.

진주챔버오케스트라는 무림페이퍼를 위해 올 해 6번 공연을 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공연은 무림페이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림페이퍼의 봉사단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주 복지원에서의 공연, 공장이 자리한 상평동 주민을 위한 공연이 포함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진주챔버오케스트라도 대 환영이다. 1996년 창단돼 연 2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지면서 꾸준히 활동해 온 진주챔버오케스트라는 공연 기회를 더 자주 갖고 싶지만 경비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현재는 지원도 받고, 연주 기회까지 늘어 그 어느 때보다 즐겁다.



지난 4월 13일, 진주복지원에서는 진주챔버오케스트라의 금관오중주 공연이 열렸다. 복지원 강당에 영화 ‘시스트 액트’의 주제가 ‘I’ll follow him’이 울려 퍼지자 100여명 관객들은 움츠렸던 어깨를 폈다. 복지원에 사는 분들은 늘 사람이 그림자만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긴장된다. 이 어색함을 금색으로 반짝이는 트럼펫과 호른, 트롬본과 튜바의 우렁찬 소리가 풀어 놓아 1시간동안의 공연이 끝나자 복지원에 사는 분들과 무림페이퍼의 봉사단이 좀 더 가까워진 듯하다. 연주를 마치고 내려 온 호른주자 강영래씨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공연 후기를 밝혔다. “처음에는 박수를 유도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대만족입니다”

이 날 공연을 끝까지 지켜 본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의 박인섭 전무이사는 “고급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복지원에서 공연이 열리게 돼 뿌듯하다”면서 “메세나는 600여명의 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결연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기 때문에 1석3조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림페이퍼는 진주 지역 내 기업 중 납세액과 고용효과 1위를 달리는 서부 경남의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메세나 역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 “그림으로 최고의 병원을 만든다”

창원 상남동에 자리한 서울이비인후과병원(원장 정태기)의 절반은 갤러리이다. 한 달에 한 번 전시된 그림이 바뀌고, 그림을 감상하기 위한 적당한 조명이 그림을 내려 걸 수 있도록 설치한 픽처 레일까지. 요즘 병원이 호텔처럼 고급화되는 추세인데다 예술 작품이나 활동이 환자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병원에 갤러리를 만드는 진짜 이유는 뭘까?

정태기 원장은 “예술은 삶의 기쁨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음...”하면서 적당한 답을 생각하는 눈치이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예술은 사랑처럼 이유가 없다. 그냥 좋아서 자주 보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감하고 싶은 그런 것이다. 서울이비인후과병원은 고희, 피카소, 세잔 등의 이름이 붙은 진료실과 복개페,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는 9층과 입원실(병상 34개)과 노천 카페를 연상시키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 8층으로 2개층인데 이 벽면은 전부가 전시 공간으로 30점의 그림들이 걸려 있다. 30여점의 그림은 한 달에 한 번씩 대안공간 마루(대표 이정태)에서 바꿔준다. 대안공간 마루는 작품발표를 위해 지역의 화가들이 심시일 반씩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갤러리다.

서울이비인후과병원과 마루의 만남은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결연을 맺기 훨씬 이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대안공간 마루의 이정태 대표와 화가들 몇 명은 “서울이비인후과병원의 실내장식이 예사롭지 않다”는 입소문을 듣고 구경을 하기 위해 찾았다. 아닌 게 아니라 의자 하나도 독특한 것이 병원장의 미적 감각이 돋보였다. 병원을 둘러보던 중 정태기원장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의 기투합해 메세나가 이루어졌다. 대안공간 마루가 병원 벽면에 그림을 전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병원에 화가들이 왔다갔다하자 40여명 직원들 중 12명이 수채화 동호회를 만들어 대안공간 마루의 운영위원인 화가들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6년 동안 서울이비인후과병원과 대안공간 마루가 만나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 연세가 지긋하신 화가들은 전시공간이 아닌 병원 벽면에 걸린다는 점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다. 지금이야 병원 갤러리에 자신의 그림이 걸리면 일부러 찾아와 둘러보지만, 또 일껏 그림을 전시했는데 며칠만에 교체를 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다. 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풍경화나 따뜻한 느낌을 주는 추상화 위주로 그림을 선정하지만 한 번은 누드 크로키가 걸려 꼬마 환자가 똥이 지게 쳐다보아서, 유난히 날카롭고 괴기한 느낌을 주는 추상화를 보고는 무섭다는 환자가 있어 부랴부랴 그림을 바꾸는 해프닝을 빚은 것이다.

그림이 있는 서울이비인후과병원에서는 종종 음악회도 펼쳐진다. 경남재즈오케스트라와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작은 연주회를 병원 실내에서 열고 있다. 앞으로 1만여권의 책을 구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태기 원장은 “눈길 닿는 데는 그림! 손길 닿는 데는 책! 귓전에는 음악!”이 다가오는 공간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문화예술이 훌륭한 병원의 충분조건인 것은 틀림없다.



## “조선업계 문화예술의 조타수”

STX 조선 주식회사 \_ 경남팍스오케스트라 \_ 아르게챔버오케스트라

세계 초일류 조선소를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STX조선(대표이사 정광석)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장학사업, 농촌돕기, 환경보호, 스포츠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어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STX의 ‘나눔경영’ 정신인데,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나눔경영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특히 STX조선이 자리한 진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STX조선은 매년 진해예총에서 개최하는 벚꽃예술제 및 진해예술제를 후원하고 있으며, 예술제 외에도 진해에서 열리는 연극이나 음악회 등을 후원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보다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2008년 5월에 개관한 진해 동진여중의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후원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보다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면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해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전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STX조선은 연극제, 무용제,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후원하며 경남지역이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임직원들도 회사가 후원한 연극 공연이나 음악회에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며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창립한 경남메세나협의회에 참여, 두 개의 예술 단체와 결연을 맺으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STX조선은 앞으로도 경남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결연 이후 경남팍스오케스트라는 매년 호응도가 좋은 정기연주회의 공연 티켓을 제공하였으며, 아르게챔버오케스트라는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 행사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STX 조선은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문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메세나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공연

## “경남은행, 메세나의 진정한 리더로 나서”

**경남은행 \_ 경남오페라단 \_ 고성오광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3년 연속 대한민국가치창조경영대상을 수상한 영남지역 대표은행인 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 지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문화예술 장르를 지원하는 등 지역 메세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경남은행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성오광대보존회(회장 이운석)와 결연을 맺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 결연 약정으로 경남은행은 고성오광대보존회의 각종 공연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고성오광대보존회는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에 더욱 적극 참여해 지역주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고성오광대는 경남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다섯 과장으로 된 가면극(탈놀이)으로 현존하는 영남형 탈춤 중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승되고 있다. 1987년 준공된 고성오광대전수관을 통해 한국 탈춤의 정기를 잇는 후예를 양성하고 있으며, 700회 이상의 국내 공연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고성오광대와의 결연식에서 정경득 경남은행장은 “우리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인 고성오광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경남오페라단(단장 정찬희)과도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3년 ‘피가로의 결혼’을 시작으로 ‘토스카’, ‘논개’, ‘나비부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등 오페라 공연의 첫 회 공연 전석을 구매하여 지역고객을 위한 고객 초청 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경남오페라단은 경남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오페라단으로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창작한 오페라 ‘논개’는 중앙무대에서도 찬사를 받았으며, 지난 해 선보인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국내에서 초연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남은행의 지속적인 오페라 지원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장르인 오페라의 대중화와 수준높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남은행은 메세나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2006년 5월 지방은행 최초의 공익 법인으로 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고, 노인·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 지원, 환경개선, 체육지원 및 문화예술지원 등의 공익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공익사업으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지원 △경남은행 장학금 전달△ 대한적십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구호품 전달,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중고등 결식학생 중식대 지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자매결연후원금 지원 △창원시 백월산 등산로 및 전망대 설치 창원시 안민고개 데크로드 보행등 설치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개최 △인애복지재단 노인주간보호센터 기금지원 △김해 신어산 등산안내 표지판 및 정상 육각 정자 설치 등을 했다.

## “청아병원에서 성악가들의 청아한 무대 펼쳐져”

**청아병원 \_ 경남프리모앙상블**

지난해 12월 18일 마산시 내서읍에 자리한 청아병원(이사장 최재영) 1층 로비에서 남성중창단의 푸근하면서도 감미로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남프리모앙상블이 귀에 익숙한 캐럴송 메들리를 시작으로 팝송, 가곡 등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환자와 가족, 병원 직원 등 350여명은 고통이 존재하는 병원이 아닌 즐거움으로 가득한 안식처로 인도된 듯 음악 소리에 서서히 빠져 들어 갔다. 또 직원들이 분장과 안무까지 직접 기획한 ‘벨미댄스’ 장기자랑과 어린이들에게는 산타할아버지의 선물도 배달되었다.

연말 연시를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음악회만큼 좋은 선물이 또 있을까?

‘고객 중심의 병원, 가족 같은 병원, 사회봉사하는 병원’이 되겠다는 모토 아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병원으로 인식되는 청아병원은 개원한 1997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음악회를 열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매주 화·금요일에는 ‘청아시네마’란 타이틀로 영화를 상영, 입원환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한 이동도서 운영 등도 고객만족 프로그램으로 내놓을 수 없다. 지역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을 상대로 한 간호봉사단 활동과 지역 복지단체 연계 불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활동도 활발하다.

청아병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병원 음악회를 열어 온 경남프리모앙상블은 1998년 전문성악인으로 창단한 남성중창단으로 남성들만의 깊이있는 울림과 참신한 악곡 구성으로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한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 병원 음악회, 근로자 사랑의 음악회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음악회에 특별출연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 “일찍이 경영에 문화예술 접목시켜”

**DongHwan DH** \_ 극단 미소

차량용 냉·난방기 전문제조업체 동환산업(회장 고동환)은 1990년대에 사내공연장(동환아트홀·607석)을 지어 정기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을 만큼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높다. 일찍이 문화예술을 경영에 접목시켜 온 동환산업은 올해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극단 미소와 결연을 맺고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극단 미소는 1989년 창단해 130여회가 넘는 정기공연으로 지역 연극발전에 애써 왔으며, 경남연극제 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창원

연극의 중심 극단이다. 극단 미소는 동환산업 임직원들에게 정기공연 티켓을 제공하기로 했다.

극단 미소의 천영훈 대표는 “지난 4월 26일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막을 올린 <오데로 가꼬?> 초대권을 동환산업에 300장 내 놓았는데 담당자가 반응이 좋다고 좀 더 줘야 하더라”면서 “지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다”라고 결연 이후의 소식을 전했다.



## “지역 국악인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반해”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_ 매성국악무용보존회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체인 진주의 경원여객자동차(회장 강세민)는 메세나 활동으로 매성국악무용보존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세민 회장은 매성국악무용보존회 지원 취지를 “오래전부터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지역 국악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반하여 메세나 협의회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매성국악무용보존회는 중요무형문화재인 ‘구례향채 줄풍류’ 예능보유자인 고 김정애 선생이 생전에 후진 양성을 위해 창단한 순수예술단이

다. ‘구례줄풍류’는 현악영산회상으로 거문고와 가야금, 양금과 같은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기악곡으로 진주와 구례, 익산지역에서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매성국악무용보존회 박완희 대표는 “지원금으로 진주 줄풍류 확산 보급을 위한 전수생 지원, 가야금 줄풍류 악보집과 음반 출간, 박지홍계 김정애류 춤을 무용사적으로 인정받고 전승보전 하는 작업 등을 할 계획이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 “문화공헌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겠다”

**NOKIA tmc Ltd.** \_ 가곡전수관

세계적인 휴대폰 노키아의 100% 한국투자법인인 노키아티엠씨(대표 김기순)는 지난해 경남메세나협회에 입회신청을 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전수관(대표 조순자)과 결연을 맺었다.

노키아티엠씨는 “국내 영업망이나 마케팅 활동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나 홍보 활동이라기보다는 문화공헌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이다”고 메세나 활동 취지를 설명했다.

노키아티엠씨는 가곡전수관의 공연과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가곡전수관은 노키아티엠씨 사내 공연이나 국악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시조시를 노래하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인 ‘가곡’ 예능보유자인 조순자 대표는 “기업은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메세나를 실천하고,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의 성과를 사회로 되돌려 준다는 자세를 가지면 될 것이다”고 메세나의 기본 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 “서부경남 문화예술 부흥의 초석”

**대경건설주식회사** \_ USD 현대무용단

1979년 창립해 건설업에 매진해온 대경건설 이운우 회장은 “서부경남 지역 문화예술 부흥의 초석이 된다는 각오로 메세나 운동에 참여한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올해 초 대경건설은 USD 현대무용단(대표 이지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서부경남지역의 기업들에게 메세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대경건설의 지원을 받게 된 USD현대무용단은 이지혜 단장이 캐나다 유학 중 한국유학생들과 결성해 2003년부터 진주 지역에서 활동해 왔

다. 정기적인 작품발표회, 국내 무용페스티벌 공연 외 게릴라 공연 등으로 지난해 30회 이상 공연 활동을 했다.

USD 현대무용단의 이지혜 단장은 “현대무용의 취지에 맞게 격식에서 벗어난 작품 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빛을 지면서 공연을 올렸는데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메세나 정신을 살려 지역사회에 봉사”



고무용 가공조제 전문제조업체로 1990년 설립하여 자동차 타이어를 비롯한 고무제품 제조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공조제, 레진과 특수 약품들을 제조, 공급해 온 동은화학(대표 박창원)은 김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무용창작단인 선 무용단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동은화학은 “메세나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선 무용단은 2006년 창단해 11명의 단원

으로 년 10회 공연을 하고 있으며 최경희 단장은 “메세나의 정신을 살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연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선 무용단은 한국무용의 원형적 요소를 기반으로 전통과 창작의 수많은 공연을 통하여 전통춤을 계승하고 우리 전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에 맞게 창작예술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 “민속예술 지속적 지원 약속”



김해시 주촌면에 자리한 금속열처리 사업체인 삼홍열처리(대표 주보원)는 김해삼정걸립치기 보존회와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결연을 맺고 지원을 약속했다.

김해삼정걸립치기(회장 박서현)는 지신밟기의 일종으로 삼정동에 거주하는 양만근씨가 몇몇 지역민들과 함께 20여년 노력 끝에 재현해 2007년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을 공동체의 두레정신과 신명을 돋우는 전통문화예술단체인 김해삼정걸립치기보존회는 양로원 및 복지회관 등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삼홍열처리는 김해삼정걸립치기보존회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농업장학사업과 함께 메세나도”



농업기업으로 성공한 장생도라지(대표 이영춘)는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이상근기념사업회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금과 상당한 양의 자사상품 등이 지원 내용이다. 장생도라지는 평균 수명이 3년인 도라지를 자연 상태에서 21년 이상 생장시킨 도라지로서 인체에 유용한 약리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식품은 물론 과학적, 의학적인 연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바이오 신소재로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시장까지 개척중이다. “기업은 개인의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경영자는 연구개발비와 종업원들의 복지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린 뒤 남는 것은 사회에 환

원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이영춘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CEO중의 한 사람이다. 2006년 장생도라지 특산주 ‘진주(珍酒)’ 출시를 하면서 판매 수익금의 3%를 농업장학사업에 기부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는 장학금과 후원금 등으로 약 1억 5천여만원이 지역사회에 환원됐다. 진주 출신으로 윤이상과 더불어 20세기 한국의 현대음악을 대표했던 작곡가 고(故) 이상근 선생의 작품 수집과 연구, 국제음악제를 열어갈 이상근기념사업회는 장생도라지의 지원으로 그동안 진주시와 함께 추진한 이상근 국제음악제 준비에 좀 더 힘을 실을 예정이다.

##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



철도차량부품 도장, 일반전동차 모듈품, 차량 설비 제작업체인 흥일기업주식회사(회장 윤한생)는 김해신폰니에타(단장 이진덕)와 상호결연을 맺고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한 경남문화예술 발전의 의지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해신폰니에타는 이진덕 단장을 중심으로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26명의 단원들이 지휘자 이효상과 함께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김해 지역

에서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해신폰니에타는 기업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정기연주회 티켓을 제공하고, 취미활동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교실도 열 계획이다. 연말쯤에는 신나는 캐럴송을 엮은 송년음악회로 직원들이 음악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 2008년도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 1.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란?

::경상남도과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에서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입니다.

## 2. 왜 중소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지원하는가?

::미래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예술단체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과 예술이 win-win하는 파트너십 구조를 마련하는데 매칭펀드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객과 직원의 만족도 향상,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통한 대외 홍보, 예술 교육을 통한 직원의 창의력 개발 기회를 만들어 기업 경쟁력 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술단체는 새로운 지원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창작활동에 전념하여 기업과 함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 어떤 기업과 예술단체를 지원하는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예술의 창의적 역량을 기업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중 소 기 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문화예술단체	경상남도내 소재하는, 1.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2. 경영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3. "매칭펀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주관 단체 및 예술 인프라

## 4. 신청 방법

::매칭펀드 신청서 제출(중소기업용, 예술단체용)

:경남메세나협회의 홈페이지(www.gnmecenat.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

## 5. 신청 접수 기간 (2008년 사업연도)

::2008년 3월 17일(월) ~ 매칭펀드 경상남도지원금 소진시까지

## 6. 지원금 기준

:매칭비율(도지원금 : 기업지원금)은 1:1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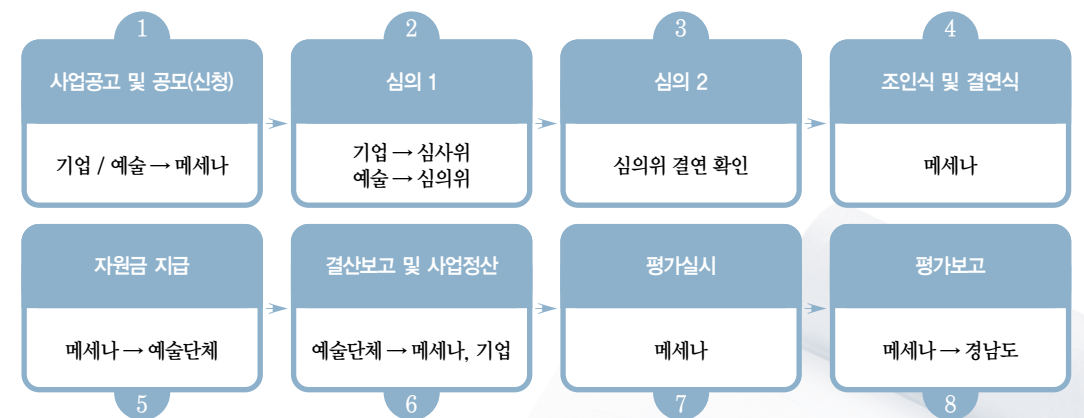
:기업지원금의 최저금액은 5백만원.

:도지원금의 건별 한도는 30백만원.

◎ 중소기업 지원금액에 따른 경남도 지원금 매칭 적용 예시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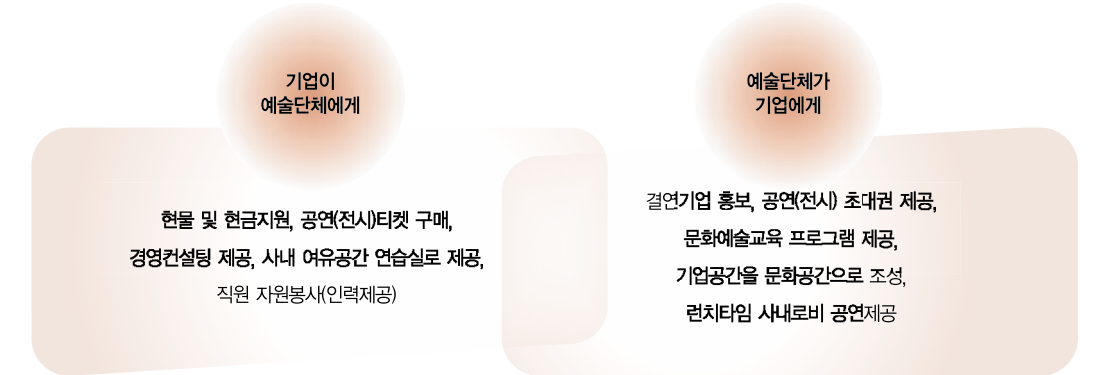
구분	매칭비율 (경남도지원금:기업지원금)	기업지원금 기준	매칭 적용 예		
			경남도지원금(A)	기업지원금(B)	합 계 (A+B:예술단체 예상 수혜금액)
1	1:1	5	5	5	10
2		10	10	10	20
3		20	20	20	40
4		30	30	30	60

## 7. 매칭펀드 지원 프로세스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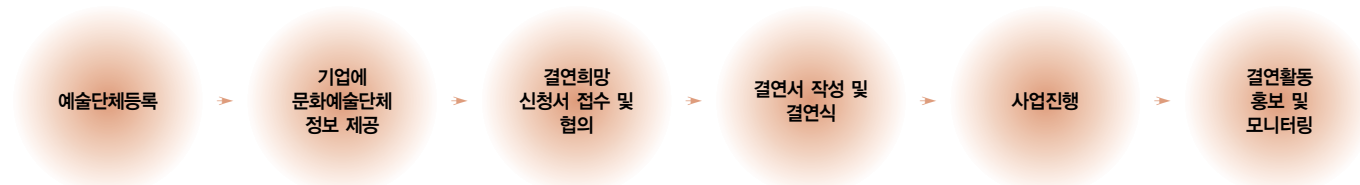


# 경남메세나협회의 “행복한 경남” 만들기

## 1.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은 문화예술단체에 현금 및 현물, 사내 여유허실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는 직원이나 직원가족에게 공연을 제공하거나 사내 임직원 예술교육, 기업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체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8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통하여 대기업 이외 중소기업까지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2008년도 30건 결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진행 프로세스]



## 2.회원사 협력 사업

전통문화예술 계승 지원과 1사 1문화 운동,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 공연을 통해 회원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문화예술 계승 지원 사업**은 경남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계승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후원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제안하는 전통문화예술 계승 지원 사업을 기업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기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1사 1문화 운동**을 통해서 회원 기업이 창조적인 기업문화 육성과 직원들이 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체별로 기업 이미지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며,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우수한 문화 예술프로그램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기업체의 제반 상황과 이미지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장르를 추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며 가장 먼저 기업체 내부로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마련이나 정기적인 공연행사 등을 실시한 이후 장기적으로 문화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찾아가는 작은 공연**은 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문화예술단체가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한다. 회원기업과 협의회가 비용을 분담하여 사내방문공연 등을 실시하며 기업은 직원과 직원가족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는 창조적 역량을 내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제안하는 공연프로그램을 기업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기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진행 프로세스]



### 3. 문화나눔 사업

소외계층이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메세나와 즐거운 나눔티켓의 두가지 활동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메세나**는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협회회의 예산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우수한 공연을 선보이고, 기업은 문화 마케팅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행시기를 연 2회로 하며 시행방법으로는 우수공연팀 조사와 더불어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조사한 후 문화마케팅에 적절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학교, 사회복지시설, 농촌 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문화예술행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 나눔티켓**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사업이다.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협회 자체 예산으로, 문화소외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수한 문화예술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기는 연 2회로 하며 복지원 등 문화소외계층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진행 프로세스]



### 4. 메세나 시상

기업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동에 대한 시상을 연 1회 실시하여 모범적인 기업의 메세나 활동 사례를 널리 알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시키고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메세나 상을 제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예술인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병행해 실시할 것이다. 매해 모범적인 메세나 활동을 해온 기업과 기업인을 공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문광부장관상, 경남도지사상, 협의회 의장상 등을 시상할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고 메세나 시상일에 시상 및 축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진행 프로세스]



### 5. 연구 및 홍보사업

**기업메세나 및 문화마케팅의 추진 전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언론홍보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메세나 운동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메세나의 빠른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다. 국내외의 메세나 활동이나 문화마케팅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기업 및 단체 대표나 마케팅 담당자들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동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수준높은 문화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메세나 활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메세나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언론홍보 및 홈페이지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 및 관련 기관, 문화예술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기업메세나 및 문화 마케팅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실시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출간한다. 또한 메세나 활동에 관한 자료 구축을 위한 자료 조사 및 기관 방문, 문화예술 인프라 자료 구축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등을 현안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진행 프로세스]



### 6. 신규 회원 모집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중견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하여 **연말까지 회원사를 20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한 희망찬 경남”

경남메세나협의회는 2007년 4월 26일 설립준비위를 발족시키고, 2007년 8월 31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메세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 4월 현재 150여개사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임원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감사/이사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창립기념식 및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2007년 10월 31일 도민홀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자문위원, 메세나 회원과 예술단체 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는 8개 기업과 10개의 문화예술단체가 결연을 맺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문화공연을 진행함으로써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든다는 취지의 회원사를 위한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인 '회원사를 찾아가는 작은 공연'을 시행했으며 경남은행, 마산청아병원, (주)삼원테크, 일림나노텍이 참여했다.

2008년 초 도내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나눔 티켓' 사업을 시행해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뽀로로와 요술램프>에는 150명의 어린이가 관람했다. 진주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서부경남 아동양육시설의 어린이 100명에게 관람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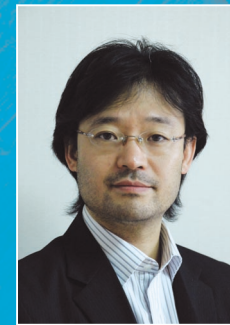
제공했다. 서부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무림페이퍼와 진주 챔버오케스트라의 결연을 시작으로 '서부 경남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2008년 1월 25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열어 3개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 3곳도 결연을 맺도록 했다. 2008년 3월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시작하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동부경남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통해 동은화학, 삼흥열처리, 홍일기업이 선무용단, 김해삼정결립치기 보존회, 김해신포니에타와 결연을 맺었다. 4월 22일부터는 지역별 예술단체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도내 소재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 참여를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였다.

이 밖에 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www.gnmecenat.or.kr)해 회원기업을 홍보하고 결연기업과 예술단체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해 17개팀의 예술단체가 기업과 결연을 하였으며, 지방유일의 메세나 협의회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왜 메세나인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에서도 기업과 예술분야의 파트너십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제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의 가치와 역할 또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기업들은 문화예술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홍보와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예술인과 예술단체들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창작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일반기업들의 지원 유형과 발생효과를 살펴보면 일회적인 이벤트성의 후원이나 협찬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단기적이며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로부터 발전시켜 나아가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지속적이고 동등한 사업파트너로서 교류 하며, **파트너의 강점을 나의 강점으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하는 공동이익서비스를 추구 할 수 있는 WIN-WIN 실천전략이 바로 “메세나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에서도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나눔 티켓”,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 펀드” 사업 등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메세나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문 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업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이러한 상호간 효율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창작되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은 **소비자들의 감성적, 문화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충족 시켜서 기업 이미지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고, **새로운 기업 문화 코드를 창출시켜서 소비자**와 공감대 형성, **감성적 친밀감**을 줄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이러한 과정은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 효과를 창출시키며 동시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네 번째, 문화예술의 창의적 본질을 활용한 조직 관리와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은 기업구성원들의 만족도 증가, 노사화합과 애사심 고취, 창의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환경 형성, 이직률 저하, 생산성 향상, 직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실질적 효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 문화이미지를 브랜드 이미지로 형성시킴으로써 브랜드 문화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세제혜택 - 기업의 표준소득금액의 5%로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게빈 니스”(Gavin Neath) “유니레버” 회장은, “에너지, 창의성, 다양성이 우리 대차대조표에는 안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 내에서 중요한 테마를 찾는데 예술과의 관계가 정말 가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 라는 말을 했다. 기업과 문화예술과의 만남을 통한 메세나운동의 중요성과 무형적, 유형적인 효과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경남메세나협의회”를 중심으로 경남의 기업들과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동으로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과 예술이 서로의 중심적인 테마들을 찾는 데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발전적인 효과들이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

경남대학교 문화컨텐츠학부 김종원 교수

#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합니다!

## 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명예회장	경상남도	도지사	김태호	
	STX그룹	회장	강덕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권정호	
	태광실업(주)	회장	박연차	
	고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박창식
	경상남도의회	의장	박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정해주	
자문위원장	무학그룹	회장	최위승	
	경남신문	회장	이순복	
	KNN경남본부	본부장	김영일	
	진주MBC	사장	정일윤	
	마산MBC	사장	박노홍	
	자문위원	경남매일	사장	여종필
	연합뉴스경남취재본부	본부장	윤대복	
부회장	KBS창원방송총국	총국장	전진국	
	경남도민일보	사장	허정도	
	경남일보	사장	황인태	
	회장	경남은행	은행장	정경득
	동환산업(주)	회장	고동환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도난실	
	삼원테크(주)	대표이사	이택우	
감사	경남오페라단	단장	정찬희	
	경남스틸(주)	대표이사	최충경	
	(주)신우공업	회장	신용운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정태기	

(성명 가나다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이사	민족예술인총연합경남지회	지회장	고승하
	고운치과병원	병원장	고철수
	한림건설(주)	대표이사	김근수
	(주)인산가	대표이사	김윤세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표	박기태
	(유)의령산업	대표이사	이동기
	(주)대정엠텍	대표이사	이병우
	산골농장	대표	이상호
	(주)장생도라지	대표이사	이영춘
	대경건설(주)	회장	이윤우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이재관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회장	이종일
	(주)화영	대표이사	이홍원
(주)영남엘피씨	대표이사	장환달	
동인하이텍(주)	회장	전수도	
STX조선(주)	대표이사	정광석	
마산정안과	대표원장	정기용	
성동조선해양(주)	회장	정홍준	
원광건설(주)	대표이사	조성제	
화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순탁	
마산청아병원	이사장	최재영	
한국제강(주)	회장	하성식	

## 기업회원

회원사명	직위	대표자
거제레미콘(주)	대표이사	윤원택
(주)건창	대표이사	이상인
경남스틸(주)	대표이사	최충경
경남에너지(주)	대표이사사장	정연욱
(주)경남은행	은행장	정경득
경양석유(주)	대표이사	이인호
경원벤티크(주)	대표이사	공경열
경원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회장	강세민
고운치과병원	병원장	고철수
광신기계공업(주)	대표이사	권환주
(합자)금강전기공업사	대표	양우석
금성이노텍(주)	대표이사	전도열
(주)기산산업	대표이사	최주철
김해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박영재
낙우산업(주)	대표이사	이용민
(주)노키아티엠씨	대표이사	김기순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이재관
누가병원	병원장	이주형
대경건설(주)	회장	이윤우
(주)대동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두원
대방스페셜스틸(주)	대표이사	김양규
대신금속(주)	대표이사	박수현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표	박기태
(주)대정엠텍	대표이사	이병우
대한전선전기(주)	대표이사	신중철

(가나다순)

회원사명	직위	대표자
(주)대호엠엠아이	대표이사	김종수
(주)덕광기업	대표이사	이상석
덕산산업(주)	대표이사	이상국
(주)동신건설	대표이사	박영호
(주)동신메카텍	대표이사	길창용
동양특수금속(주)	대표이사	전말선
(주)동오프랜지	대표이사	최옥렬
동은화학	대표이사	박창원
동인하이텍(주)	회장	전수도
(주)동환	대표이사	조영파
동환산업(주)	회장	고동환
두남화학	대표	김두선
디씨엑스(주)	대표이사	최덕봉
디씨엠(주)	대표이사	정연택
디앤스틸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봉재
리온건설(주)	대표이사	손정수
(주)마린테크	대표이사	백승찬
마산정안과	대표원장	정기용
마산청아병원	이사장	최재영
무림페이퍼(주)	대표이사	김인중
(주)미래산업	대표이사	정재훈
미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종우
바칠라캐빈(주)	대표이사	신상현
(주)베스트엔드베스트	대표이사	서준호
(주)보강기업	대표이사	김경교

#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합니다!

## 기업회원

회원사명	직위	대표자
보화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순권
(주)부일이엔씨	대표이사	김 철
산골농장	대표	이상호
(주)삼보산업	대표이사	윤병고
삼우금속공업(주)	대표이사	방효철
삼원동관(주)	대표이사	김갑수
삼원테크(주)	대표이사	이택우
(주)삼정터빈	대표이사	정진욱
삼중건설(주)	대표이사	김연우
(주)삼진	대표이사	강영일
(주)삼화텍	대표이사	이정열
삼흥열처리	대표	주보원
(주)사인	대표이사	신이현
성동조선해양(주)	회장	정홍준
(주)성우기전	대표이사	이상길
(주)성지	관리이사	강희숙
(주)세복	대표이사	김복기
(주)센트랄	회장	강태룡
승진기계(주)	대표이사	백구영
신광에이스전기(주)	대표이사	김강민
신대양(주)	대표이사	박종춘
신동방산업(주)	대표이사	성세열
(주)신우공업	회장	신용운
(주)신우디텍	대표이사	백화진
(주)신택	대표이사	조용수
(주)에드테크	대표이사	박기용
(주)영남엘피씨	대표이사	장환달
(주)영신화공	대표이사	강영전

(가나다순)

회원사명	직위	대표자
(주)영일정공	대표이사	유병일
(주)오곡산업	대표이사	윤종열
(주)우성건설	대표이사	최송규
원 한의원	원장	원호영
원광건설(주)	대표이사	조성제
원광산업석재	대표	이상섭
(주)웰템	대표이사	박정우
유전철강(주)	대표이사	류재기
(유)의령산업	대표이사	이동기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사무국장	정지영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사장	박 건
(유)이삼사보이호텔	대표이사	홍종대
(주)이앤티	대표이사	박갑진
(주)인산가	대표이사	김윤세
인산죽염촌(주)	대표이사	최은아
인화정공(주)	대표이사	이 인
일림나노텍(주)	부회장	박효찬
(주)장생도라지	대표이사	이영춘
(주)장성E.P.S	대표이사	신종길
(주)장한	대표이사	장이근
정남종합건설(주)	회장	송한영
중앙건설(주)	대표이사	여봉규
(주)중원비엔피	대표이사	심부관
중원종합건설(주)	회장	안권상
(주)진명	대표이사	김덕진
(주)진영	대표이사	박상진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정태기
(주)창원자동차학원	대표이사	김진열

## 기업회원

회원사명	직위	대표자
(주)천도	대표이사	김승훈
초심공업(주)	대표이사	석현동
(주)캐스탑	대표이사	정병환
쿠쿠홀시스(주)	회장	구자신
태광실업(주)	회장	박연차
(주)태영버스	회장	정문흠
(주)태완정공	사장	박수완
(주)태현메가텍	대표이사	박병출
포스코특수강(주)	대표이사	성현욱
(주)풍양에스엔티	대표이사	김명재
피케이밸브(주)	대표이사	박헌근
하이에어코리아(주)	대표이사	김근배
한국소니전자(주)	대표이사	전재철
한국정기공업(주)	대표이사	류흥목
한국제강(주)	회장	하성식
한국태양유전(주)	대표이사	이현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정해주
한림건설(주)	대표이사	김근수
(주)호텔인터내셔널	회장	윤영호
(주)화성	대표이사	이용일
화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순탁
화신티수섬유유타(주)	대표이사	조인순
(주)화영	대표이사	이홍원
(주)화영	대표이사	손화현
(주)화인에이티씨	대표이사	윤상대
화인테크놀로지(주)	대표이사	서영옥
화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복영
(주)환웅전기	대표이사	한장규

(가나다순)

회원사명	직위	대표자
흥일기업(주)	회장	윤한생
ONE	대표	이종호
(주)POSI	대표이사	최기석
STX엔진(주)	대표이사	이강식
STX조선(주)	대표이사	정광석

## 예술단체회원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관장	김형석
경남오페라단	단장	정찬희
민족예술인총연합경남지회	지회장	고승하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회장	이종일

## 개인회원

김성삼	대표	보성엔지니어링
김해근	원장	김안과의원
남해정	대표	세영산업
도난실	도의원	경남도의회
임경숙	도의원	경남도의회
조동식	대표	우리법무사합동사무소
최정두	사장	삼정기업

(2008년 5월 현재 총 회원수 150명)



### ‘기업. 문예 상생’ 경남메세나협의회 추진

경남지역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호 발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남메세나협의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경남도는 26일 오전 창원시내 호텔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심이 많은 기업체 대표와 언론, 문화계 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메세나협의회 설립 준비위원 간담회를 갖고 준비위원장에 정경득 경남은행장을 선임하는 한편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안, 회원 확보방법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2007-04-26)

### 기업 사회적 책임, 우리가 보여준다!

경남스틸(주) 최충경 대표이사 “안전한 복리후생 선사할 터”  
색소폰 연주자이기도 한 최충경 대표이사는 평소 ‘메세나’에 관심이 많다.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 헌납해야죠. 매년 빠짐없이 사회에 환원하다 보니 회사 성장도 자연스럽게 뒤따르더라고요.”...

(뉴스메이커 2007-08-30)

### 경남 ‘문예부흥’ 시작됐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기업-문화예술단체 10쌍 결연  
문화예술을 후원할 사단법인 경남메세나협의회가 31일 오후 도청 도민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경남 르네상스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김태호 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제 예술을 모르는 기업은 돈을 벌 수 없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은 경남도가 추구하는 남해안시대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걸음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남신문 2007-11-01)

### 메세나협, 문예부흥 밑거름 되기를

지난해 경남도가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한 액수를 보면 8억2,000만원(418건)에 그쳤다. 지원 요청한 24억원(553건)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러한 차에 경남메세나협의회가 탄생했으니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가 가일층 상승되고 있음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 사실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나서면 경영 이윤을 가장 보람되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는 문화예술이 기업 이익 창출 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고 있다.

(경남신문 사설 2007-11-02)

### 경남메세나협 출범 “기업 문화간 가교역할”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경남메세나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초대 협의회장인 정경득 경남은행장과 김태호 도시사, 고영진 교육감, 이순복 경남신문 회장, 허정도 경남도민일보 사장 등 400여 명의 기관 단체장과 예술인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기업은 예술적 발상이 필요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메세나협의회가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7-11-03)

### 기업도 “예술 후원”

기업이 문화공연이나 공익사업에 후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메세나운동이 경남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소외된 계층에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지원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지역에서의 더 풍성한 예술 활동이 기대됩니다.

(KBS 2007-11-05)

###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송년회 어떠세요?”

경남메세나협, 연말 회원기업 대상 ‘찾아가는 이색 문화공연’ 신청 받아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메세나 회원 기업체에 대해 도내 문화예술공연단체들이 ‘찾아가는 이색 문화공연’을 제공한다. (사)경남메세나협의회(회장 정경득 경남은행장)는 회원 기업체의 송년회 공연 신청을 받아 문화예술단체들이 업체를 방문, 공연을 펼치는 이색 공연을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신문 2007-11-28)

### 2008년 경남메세나운동, ‘기업-문화 상생’ 본궤도 오르나

기업의 예술단체 지원금액만큼 도에서 추가지원하는 ‘매칭펀드’ 시행  
지난해 도입한 접대비 손비 인정제와 함께 메세나 활성화 원동력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 문화접대비 시행...  
2007년이 문화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해였다면 2008년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고민하는 해다. 2007년 말 그 고민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면서 2008년엔 ‘기업과 문화의 상생’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소기업 예술 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도 예산 3억 원이 지난해 12월 최종 확정돼, 비용부담 때문에 메세나 활동을 꺼리던 중소기업들의 손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경남도민일보 2008-01-02)

### 메세나협의회, 아동 뮤지컬 공연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겨울방학을 맞아 문화체험에서 소외되기 쉬운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늘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어린이뮤지컬 관람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어린이 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 공연에는 경남지역 보육시설 어린이 14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KNN 2008-01-19)

### 즐거운 나눔 티켓 사업으로 청소년들 찾아가

“아이들이 겨울 방학인데도 TV 앞에만 앉아 있어 너무 안타까웠는데, 모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어린이 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가 공연됐다. 이 공연을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관람한 마산 인애의 집 김응규(32) 보육교사는 “한 겨울 움츠리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해맑은 웃음을 만끽할 기회를 주어서 뿌듯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경남도민일보 2008-01-21)

### 경남메세나협의회, 서부경남 문예부흥 나서

경남메세나협의회는 25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 임원 및 회원, 문화예술계, 경제계, 언론계 및 진주시관 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경남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대표적 기업체인 대경건설(주)와 (주)경원여객, (주)장생도라지가 각각 USD현대무용단, 매성국악무용보존회, 이상근기념사업회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결연했다.

(경남일보 2008-01-28)

### 경남메세나, “경남문화예술 르네상스 앞당기자”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 사업을 펴 오고 있는 경남메세나협회가 오늘 오전 창원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경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경남메세나를 본 궤도에 안착시키는 ‘정착의 해’로 삼고, 내년부터는 ‘성숙의 해’로 도약시키겠다고 경남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앞당기기 위해 회원사와 문화예술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자 당부했습니다.

(MBC 2008-02-28)

### 경남메세나협, “매칭펀드로 문화예술 지원”

올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기업과 경남도가 함께 참여하는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경남도가 1:1의 비율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기업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면 도가 1천만원을 추가해 해당 문화예술단체에는 총 2천만원의 지원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2008-03-17)

### 경남메세나협, “동부경남메세나 활성화 간담회”

경남메세나협회는 15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문화예술계, 경제계, 김해시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경남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 동부지역의 메세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쌍의 기업-예술단체 결연식도 함께 열렸다.

(머니투데이 2008-04-15)

### 경남메세나협의회 동부경남 문예부흥 시동

15일 열린 ‘동부경남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동은화학-선무용단, 삼흥열처리-김해삼정걸림치기 보존회, 흥일기업주-김해신노니에타가 각각 상호 결연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진주지역(서부경남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이어 열린 지역별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동부경남지역의 메세나 활동에 대한 관심 고취와 참여 증대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고른 발전을 꾀하고자 마련됐다.

(경남매일 2008-04-16)

### 지역별 예술단체 설명회 개최

(사)경남메세나협의회(회장 정경득 경남은행장)가 22일과 24일 양일간 도내 소재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경남메세나 협의회 참여를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1일 경남메세나협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할 사업설명회는 22일 진주지역과 24일 창원지역이며 현재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일보 2008-04-22)

# 2008 회원사를 위한 작은 공연

##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즐거운 회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나눔의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회원을 위한 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사내 각종 행사시 직원 및 직원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제공해 드립니다.  
회원사 직원 및 가족을 위해 회원사로 직접 찾아가 클래식, 팝음악, 전통예술, 연극 등 아름답고 재미있는 공연을 제공합니다.

❖ 공연기간 : 2008년 연중상시

❖ 장소 : 회원기업내 (강당/로비 등)

❖ 대상 : 회원사 직원 및 직원가족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1부 제출(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연비지원 : 회원사별 연간 1회에 한해 공연비용의 50%(100만원 한도)를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지원

❖ 제공 프로그램 (회원사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가능)

특정일	기획 행사	성격	대상	구성 내용
어린이날 기념	꿈나무 사랑 행사	공연물	직원 자녀 (어린이)	◆ 인형극 공연 ◆ 사회자와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 “대안공간 마루”의 미술 프로그램 구성
	청소년 해설 음악회	음악회	직원 자녀 (청소년)	◆ “경남 팝스 오케스트라”와 “가곡전수관”의 공연 ◆ 악기 체험 프로그램 구성
어버이날 기념	부모 사랑 행사	신명 한마당	직원 부모님	◆ 신나는 대금 한마당 공연 ◆ 민요 가락 한마당 공연 ◆ 고성 오광대의 풍물 한마당 공연
신입사원 환영회	신입사원 부모초청 행사	음악회	신입사원 부모님	◆ 세대 공감 퓨전 국악 공연 ◆ “숫대패 사물놀이 예술단”의 풍물 공연 ◆ 민요가락 한마당 공연
	Step up 콘서트	뮤지컬	신입사원	◆ “극단미소”의 미니 역할극 공연 ◆ 보컬과 소프라노섹소폰의 듀엣 공연 ◆ B-Boy 퍼레이드
창립 기념일	No.1 두드림 콘서트	공연물	전 직원	◆ 가베놀이, 구정놀이 공연 ◆ 사회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하계 휴양	아이스 콘서트	음악회	직원 가족	◆ “아르카뎬오케스트라” 공연
점심 시간	“휴(휴) 머니즘 콘서트	미니 콘서트	전 직원	◆ 퓨전실내국악공연 ◆ 소프라노섹소폰 공연 ◆ “경남프리모앙상블” 공연
문화송년회	추억의 팝과 영화음악	음악회	직원 및 가족	◆ “미산관악합주단”과 “경남프리모앙상블”의 크리스마스 캐롤 및 추억의 팝과 영화음악 연주
	퓨전음악회(클래식/국악)	음악회	직원 및 가족	◆ 친근한 음악을 서양악기와 전통국악이 함께 연주하는 퓨전음악회